

## 작품으로 행동하고 참여하는 작가 張德祚



글 이 세 기 소설가 · 전 대한매일 논설위원

장덕조(張德祚). 그는 한 시대를 품미했던 이 나라 대표적 작가의 한 사람이다. 그의 왕성한 집필활동은 1940년대에서 70년대에 이르기까지 각 일간신문들이 그를 연재소설 작가로 영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서울에서 발간되는 서울·경향·연합신문과 동아·조선·한국·중앙일보 외에 각 지방신문의 연재소설을 석권하면서 스케일이 크고 문장이 유려한 그의 역사소설은 독자들에게 신문을 기다리는 재미를 안겨주었다.

그와 동시대를 고쳐했던 마해송, 조지훈, 김리석, 박영준, 정비석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심지어는 이 작가도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인터뷰 등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일체 삼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를 만나본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미수(米壽)인 지금도 투철한 작가정신과 자존심의 빛이 사그라질 줄 모른 채 그는 역사소설 전 50권에 도전하고 있다.

## 필생의 목표인 「한민족 5천년사」 50권에 도전

1989년 11월, 75세의 나이로 그가 대하소설 「고려왕조 5백년」 전 14권을 출간했을 때 사람들은 “장덕조 씨가 아직 살아 있었나?”라고 크게 놀랐다. 나이 오십에 절필소동이 있었던 문단으로선 긴 침묵 끝에 예고 없이 등장한 노작가의 전집 출간 소식은 오만과 자일에 대한 경종일 수밖에 없었다.

올해 나이 88세.

「고려왕조 5백년」 출간 이후 그는 지난 10여 년 동안 고려 신라 백제 삼국을 배경으로 한 「해동삼국지(海東三國誌)」 집필에 들어가 있었다. 이미 발표하여 묶어낸 「조선왕조 5백년」 10권과 「고려왕조 5백년」 14권, 이번 「해동삼국지」 20권이 끝나면 「상고사(上古史)」 6권을 추가하여 「한민족(韓民族) 5천년사」를 전 50권으로 완성한다는 것이 필생의 목표다.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하지 않고 14권으로 낸 「고려왕조 5백년」은 200자 원고지 2만 6천 장 분량. 「해동삼국지」는 4만 장 예정으로 현재 2만

장을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워드 프로세서가 아닌 만년필 글씨로 또박또박 써 내려간 이 소설이 탈고될 경우 그 분량은 요즘의 단행본 40권과 맞먹는 숫자다. 1년에 한 권씩만 내어도 30년이 넘게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가 한국 역사의 태동기인 상고사에서 조선사에 이르는 한민족 5천년사를 소설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해방 직후부터다.

1935년 『매일신문』에 첫 역사소설 「은하수(銀河水)」와 1945년 『동아일보』에 「낙화암」을 연재하면서 역사 속에 나오는 의로운 사건과 인물들의 극적 상황, 모험과 원한, 복수와 혁명사로 점철된 궁중비화에 관심을 갖다보니 우리나라 역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는 역사 대하소설을 쓰겠다는 야심이 생긴 것이다.

“역사는 이어지는 산맥과 같으며 기록을 통해서만 전 달되고 남는다”는 생각에서 어쩌면 피나는 각고가 될지도 모를 작업에 스스로 도전을 결정했고 막상 집필에 들어가자 “역사는 소설보다 재미있고 실감이 넘쳐 집필이 즐겁기만 했다”고 한다. 그의 장구한 구상을 듣고 이에 선뜻 협조를 자처하고 나선 사람은 『한국일보』 사주 장기영(張基榮) 사장이다.

장 사주는 “원고 심부름할 사람, 운전기사 달린 승용차, 자녀 학비를 포함한 생활비 일체를 부담하겠다”면서 한민족 5천년사 집필을 적극 권유해 왔다. 당시 문인들의 열악한 환경에서 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특별대우였다.

1965년에서 72년까지 장장 7년간에 걸쳐 『한국일보』에 연재했던 「이조(李朝)의 여인들」은 한민족 5천년사 중 최근세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 소설은 『한국일보』와 일본 『태양신문(太陽新聞)』에 동시 연재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것이 후에 「조선왕조 5백년」으로 제목을 바꾸어 펴낸 전 10권이다.

조선조에 이어서 34대 425년에 걸친 고려왕조 5백년에 대한 자료수집과 구상을 끝내자 작가는 1976년 2월, 자녀들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건너갔다. 사람들과 만나고 그





1. 최근 미국에 사는 아들들의 방문을 받고 가족들이 기념사진. 앞줄 왼쪽부터 차남 박우형(원자력박사), 작가 장덕조, 장남 박원형(체이스맨해튼 은행 제1부총재), 뒷줄 왼쪽부터 장녀 박하연(시인), 3녀 박영애(소설가), 차녀 박우촌(서예가)  
2. 1985년 크리스마스 때(뒷줄 왼쪽부터 작가 장덕조, 장녀인 시인 박하연, 셋째 딸인 소설가 박영애, 앞줄 왼쪽 차녀인 서예가 박우촌과 손주들)  
3. 1987년 「고려왕조 5백년」 탈고하던 무렵  
4. 최근 막내딸인 소설가 박영애와 덕수궁에서  
5. 최근 이사해 온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해동삼국지」 집필실

들의 연락을 받는 일이 집필에 방해가 되어서다. 미국에서 소설의 일부를 완성하고 돌아오겠다고 생각했으나 아들들이 마련해 준 ‘너무나 정리가 잘된 호화로운 서재’에서 글을 쓰는 일은 “3등칸 표를 가지고 1등칸에 앉아 있는 것처럼 불편해서” 그는 미국생활 두 달 만에 귀국해 버렸다. 아들들의 극진한 효도가 글 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미국에서 돌아온 이유는 간명하다.

“그 나라에서 가지는 뻔을 수 있을지언정 뿌리까지 옮겨 심을 수는 없었다. 내 가슴속에 맺혀 있는 무상감과 집념은 아들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내가 함께 살 수 없다는 서글픔과 내가 태어난 땅에 대한 애착심에서 오는 것이었다.”

1977년부터 『한국일보』에 연재하기로 했던 한민족 5천년사는 같은 해 장 사주의 작고로 일단 중단되고 말았다. 조선왕조 이후 고려왕조를 쓰기 위해 밤낮 없이 원고지에 매달려 있던 작가로선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그

러나 낙담하지 않고 그는 “방향 없는 인생, 모색이 허락되지 않는 생활에는 발전이 없다”는 것과 “내가 이 소설을 완성하지 않는다면 평생 작가로 산 보람이 없다”는 각오로 어렵고 힘든 작업을 혼자서 마무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란 장편소설을 남기고 이승을 떠나기 마련이다. 우리의 5천년사 속에 살다간 사람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 많은 사람의 수효만큼이나 다양한 생활과 고뇌와 풍운의 빛과 정취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 중 몇 사람만의 인생이라도 또렷이 부각시켜 후대사람들이 우리 한국인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여 고려사의 사람들과 교류(交遊)했으며, 가족들이 지나치다고 극구 말려도 고난과 고통 후의 결실을 믿고 집필에 매달렸다. 이제 50권 중 24권으로 ‘성취의 절반’을 이루었고 나머지 반을 마쳐 이루기 위해 그는 커피를 마셨는지 잠을 잤는지 모르는 창

작의지로 하루 50장에서 어느 때는 150장까지 샘솟듯 끈질기게 써 내려간다.

## 작품만이 행동이며 참여'로 한평생 일관

문단에서도 그는 ‘언제나 국외자의 위치’에 서 있었다. 작가가 작품으로 말하면 그뿐 굳이 어떤 모임을 만들고 거기에 소속되어 편을 가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냐는 것이다. 여류나 남성 작가로 대별하는 풍조도 무색하고 어색하다고 일축해 버린다. 여류 시인과 여류 소설가들이 모여 여류문학인협회를 만들고 “당신은 한국의 작가가 아니라 미국 작가냐? 프랑스 작가냐?”고 그의 도도함을 따질 때도 끝내 어떤 협회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글 쓰는 사람은 ‘작품만이 행동이며 참여일 뿐’ 문학단체 소속은 소설을 쓰는 일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문단 동향을 알고 싶어하지도 않았고 모든 소통을 두절하고 지냈다. 그 대신 홀로 고립되어 부단한 생명의 흐름을 추적한 끝에 그가 구하여 마지않던 것을 얻을 수 있었다.

그의 이런 일면은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다산을 국가의 인구정책으로 삼던 시절에 일곱 남매를 낳고 키웠다. 그의 자녀들은 ‘곤핍(困乏)’으로 하여 정신이 병들거나 상한 일이 없었다.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나 대장이 되겠다거나 큰 부자 되겠다고 하지 않았다. 나 역시 그들이 적당하게 건강하고 보통으로 공부하고 차라리 봄바람의 파스함을 느낄 줄 아는 피부와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와 좋은 풍경을 감상할 줄 아는, 그리고 타인의 불행을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부드러운 감성을 지닌 사람들이 되기를 바랐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추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것을 얻으려는 인간은 추하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이기로 가득 차고 감각은 무디어지고 다른 사람의 불리와 희생을 헤아릴 줄 모르게 된다.”

장남 원형(朴元亨)은 현재 미국 체이스맨해튼 은행 제

1부총재, 차남 우형(宇亨)은 원자력학자, 3남 주형(宙亨)과 4남 관형(寬亨)은 미국인들을 고용하는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 딸들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장녀 하연(河研)은 시인, 차녀 우촌(雨村)은 서예가, 셋째딸은 소설 『탄야』의 작가인 박영애(朴鈴愛) 등으로 모두가 문인 가족이다. 현재 아들 4형제는 미국에 있고 박영애도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이었던 남편 김영희(현재 『중앙일보』 부사장 대기자)를 따라 1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다가 1970년대 말 귀국, 딸들은 서울에 살고 있다.

이처럼 훌륭한 자녀들을 두었으면서도 넓고 험텅그렁한 집에서 그는 가정부 하나만을 데리고 혼자 살았다. 딸들이 번갈아 설득하고 오랜 문우인 시인 구상(具常)마저 간곡히 조언하여 1986년, 세 딸이 사는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이사했으나 그는 몇 달 되지 않아 딸들 모르게 거처를 목동으로 옮겼다. 이곳에 살고 있는 딸들의 어머니 걱정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그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아침이 되면 딸 하연이 ‘별고 없으시죠? 맛있는 것 좀 만들어 보낼까요?’ 아무것도 보내지 말라고 만류하고 전화를 끊고 나면 차녀 우촌이 전화, ‘어머니두 제발 다른 부모님처럼 젊은 사람들이 하지는 대로 따라주세요’ 하지만 그들에겐 그들 가족이 있는데 내가 왜 짐이 되고 신경을 쓰게 할 것인가, 나도 내 일이 있는데…”

딸들 몰래 이사해 온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는 전화와 초인종을 달지 않았다. 경비실과 연결된 인터폰도 없었다. 하루 한 번씩 다녀가는 파출부가 조용히 집안살림을 돌보면서 방해하지 않는 것을 고마워하면서 「고려왕조 5백년」 집필에만 몰두해 있었다. 어머니의 이런 성품은 그들 7남매에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목동 아파트 사건 이전인 북아현동에 살 때도 그는 집필에 들어가면 전화 코드를 빼놓는 습관이 있었다. 어머니 집에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직접 가서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어 너무나 놀란 딸들은 어머니에게 무슨 번고라도 생긴 줄 알고 담을 뛰어 넘어간 것이



다. 그러나 당사자인 어머니가 '도둑인 줄 알고 더 혼비백산' 했던 에피소드가 있다.

“오죽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박영애의 말이다. 본인이 참견하지 않는 것만이 가장 행복하다는 데야 더 할말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에 대한 효도는 접어두고 어머니가 좋으신 대로 편안하게 바라보기로 한 것이다. 어머니의 고집과 결의를 안 이상 안부전화를 자주 걸거나 간식을 드시라고 권하지 못하고 용달차로 원고지가 실려 들어가도 막지 않았다.

이처럼 그는 공사간에 자신이 '작가'임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작가는 따로 명함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작품이 명함이고 작품으로 알려지면 된다”는 자세를 지킨다. 지난 봄 이화여대 동창문민회가 그의 집필 의욕을 전해 듣고 이화문학상을 수여하려 할 때도 “내가 이화에다 기여한 바가 없는데 내게 왜 상을 주느냐,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라”고 극구 고사했다.

「고려왕조 5백년」 완간을 보고 주변에서 75세란 나이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도 “내가 장편소설 「은하수」를 집필한 것은 21세 때이고 지금도 그때의 정열과 용기와 의욕이 변치 않았다. 작가가 쓰고 있는 동안은 언제나 20대다.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무 살일지라도 죽은 나이 나 마찬가지다. 40대에 붓을 뿔었다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작가의 나이는 통계상의 수치일 뿐”이라고 자적했다.

#### 처절한 가난 속에도 휴머니즘 넘쳐난 대구 피난시절

1914년 경북 경산 자인(慈仁) 출생. 고향에 초등학교를 세운 근면한 지주의 외동딸이다. 부친은 그의 딸을 '천재소녀'로 알고 다른 문중의 소년들보다 몇 년이나 앞서 「동몽선습」 등 한문을 가르쳤다.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부친의 소망대로 서울에 올라와 배화여고와 이화여전 영문과를 졸업, 1932년 월간 『개벽(開闢)』지를 통해 단편소설 <저희(低徊)>로 문단에 나왔다.

이화여전을 졸업하던 1934년, 대대로 서울서만 살아온 박명환(朴明煥 · 1970년 작고)과 결혼, 만주에서 독립운동과 광복 후 정치운동을 하던 남편이 가정을 돌볼 틈이 없었기 때문에 '가랑잎처럼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그는 『개벽』지 기자로 출발하여 언론과 작가생활을 병행해 왔다.

누구나 겪었지만 그의 대구 피난시절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처절한 가난과 옛 문인사회의 휴머니즘이 넘쳐 있다. 6·25가 나자 정치를 하던 부군이 외지에서 떠도는 동안 그는 혼자서 7남매를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다. 사흘이면 서울에 돌아올 줄 알고 빈손으로 '콩강정'처럼 사람의 떼가 달라붙은 무개차'를 타고 대구에 내렸으나 살길이 막막하기만 했다. “아이들은 먹어도 먹어도 모자라는 비정상적인 식욕을 나타냈고 이를 해결할 길이 없어” 거리를 헤매며 혼자서 호느끼기도 했다. 그가 할 줄 아는 것은 글 쓰는 일뿐이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가져온 호랑이털 오버를 서문시장에 내다 팔아서 아이들 약을 사고 먹을 것을 장만했다. 모처럼 문인들이 모여드는 아담다방에 들렀을 때 “『영남일보』에서 장덕조를 찾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신문사로 찾아가서 『영남일보』 문화부장이 되었다. 신문에 출근하게 됐으나 입고 갈 옷이 없어 정훈감실에서 내어준 군복을 입고 다녔다. 1951년 봄, 육군본부 정훈감실의 주선으로 구상, 정비석, 박영준, 김리석, 최독견 등 10여명과 함께 중군작가단의 한 사람이 된 것이 군복과의 인연이다. 대구 언론사 시절은 내내 군복차림을 면치 못했다. 일할 수 있는 즐거움과 살아남은 기쁨 때문에 그는 기사를 모아 정리하고 쓰는 일 외에 공장에 내려가 판을 짜고 사회면 기사의 심한 사투리를 자진해서 교정하는 등 몸을 사리지 않고 일했다.

“내가 『영남일보』에 취직하자 아담다방에서 하릴없이 시간을 죽이던 피난 문인들은 나를 따라 날마다 『영남일보』에 모여들었다. 내가 근무하는 동안 신문을 보거나 담배를 피우다가 밤이 되면 편집국 의자를 맞붙여놓고



6. 1975년 현대문학사에서(왼쪽부터 장덕조, 조연현, 한 사람 건너 이원수)  
7. 1951년 대구 『영남일보』 문화부장 겸 중군기자 시절  
8. 1970년대 예총에서 왼쪽 이봉래, 오른쪽 장덕조  
9. 1965년 『한국일보』에 「이조의 여인들」 연재 당시  
10. 『대한일보』에 「여화」 연재시절 삼화를 맡은 이우경 씨와

잠을 자기도 했다. 마해송, 최인옥 등은 『영남일보』 나무 책상과 의자에서 새우잠을 자던 이들이다.”

그의 월급날은 문인들의 월급날이기도 했다. 심지어는 마누라가 아이를 낳게 되었다고 경리부에 가서 그의 월급을 선불해 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어느 때는 묵인하고 어느 때는 내 아이들을 생각해서 화를 내기도 했다. 퇴근하면 문우들과 신문사 근처에 있는 '대추나무집'에 들러 배고픔을 막걸리로 달랬다. 그러다가 정훈감실에서 알게 된 고급장교가 오면 문인들을 대추나무집보다 더 큰 '청수원'에 데려가 주었다. 그 고급장교의 부인은 마침 그의 모교인 배화여고 출신이어서 '과묵한 고급장교'는 “아이들 갖다 주라”고 안주와 과자를 종이에 싸주는



등 그에게 자상한 친절을 베풀었다. 작가는 “그가 바로 10년 후 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영남일보』 김영보 사장과 이흥로 편집국장도 후덕한 신사들로 신문에 피난 문인들이 들끓어도 싫은 내색은커녕 밤새 난로를 피워주고 문인 자녀들의 학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가판을 시키기도 했다. 당시 대구에는 『영남일보』뿐이어서 신문이 잘 팔리고 있었다.

“아홉 살이던 차남 우형도 1권이 나올 때마다 신문사 앞에 와서 신문을 받아갔어요. ‘오늘 날짜 영남일보 나왔습니다’를 외치며 골목골목으로 뛰어다니는 아들이 안쓰러웠지만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어. 하는 수 없이



아들이 오는 시간에 신문사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문을 들고 뛰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천둥처럼 내려앉았지.”

어른, 아이들이 그 고생을 극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던 시절이었다. 그는 그때의 심경을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나 세월은 흐른다. 이 세상의 모든 사상(事象)은 흘러간다. 아무리 절실했던 사실들도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한 장의 풍경화에 불과하다. 지난날의 일들이 풍경화에 불과하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달려올 일들도 한 폭 풍경화가 아니겠는가?”

#### 전투 중인 최전방의 생생한 목격, 후에 술한 소설로 담겨져

6·25로 가산과 집을 다 잃었으나 그는 “나의 일곱 아들이 부상 하나 없이 살아남아 준 것”을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겼다. 그의 나이 30대 중반 때였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사회의 비리를 꼬집던 유일한 여성 중군작가로서 그는 신문사 논설위원이 되고 나서도 사단본부나 연대에 나가 ‘사단장 프로필’이나 쓰고 전방부대에 가서 후방소식이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 중인 최전방에 나가 피에 젖은 역사의 현장을 발로 뛰어다녔다. 전쟁은 그에게 ‘인간의 목숨은 이렇게 불타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었고 인간생명의 무력함을 일깨워주었다. 그것은 허무와 통하는 것이었으며 그가 직접 손을 잡고 그 최후를 지켜본 병사도 있었다. 그때의 생생한 목격이 소설을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는 『영남일보』를 거쳐 『대구매일신문』 문화부장 겸 논설위원으로 사설·시평을 쓰면서 사회의 한 귀퉁이에서 보고 들은 것을 꼬집는 ‘단침(短針)’의 필자이기도 하다. ‘노노자(怒怒子)’란 필명으로 이를 맡아 쓰는 동안 수많은 독자의 호응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다가 『대한일보』 김연준 사장의 권유로 『대한일보』로 일 자리를 옮긴 후 1952년 『동아일보』에 『광풍』을 연재했다.

본격적으로 소설만을 쓰게 된 것은 1958년, 『한국일

보』에 『벽오동 심은 뜻은』을 연재하면서부터다. 『한국일보』에 연재하면서 『조선일보』에도 『여인도』와 『비취(翡翠)』를 연재, 1961년부터 『연합신문』에 『대신라기(大新羅記)』를 연재하여 전 8권으로 묶어냈고 『서울신문』에 연재했던 『천추궁(千秋宮) 깊은 밤에』는 전 10권, 『경향신문』에 『민비』 『격랑(激浪)』, 『대한일보』에 『여화(麗花)』 등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외에 『한양성의 달』(『부산일보』), 『춘풍추월(春風秋月)』 『훈풍』(『대구매일신문』), 『여승암(女僧庵)』(『국제신문』), 『논개』(『대구일보』), 『만종이 운다』(『대구매일신문』), 『여인의 궁전』(『전남매일』) 등 그의 소설을 실고자 전국의 신문들이 두 눈에 불을 켜고 있었다.

일련의 역사소설과 저 유명한 「다정(多情)도 병이런가」 「장미는 슬프다」 「잔국(殘菊)」 「지하여자대학」(『중앙일보』), 「원색시대」(『서울신문』), 「여자 30세」(『대구매일』), 「십자로」(『영남일보』), 「여자 40세」(『연합신문』), 등 현대소설을 줄기차게 발표하는가 하면 TBC-TV 연속 드라마이던 <대원군>과 <여인열전>은 방송 후 각각 책으로 묶어 전 4권과 10권으로 출간되었다. 단편소설도 <30년> <수우(愁雨)> <함성> <창백한 안개> <세월> 등 120여 편, 소녀소설집도 「별 하나 나하나」 등 12권이나 된다. 그러니까 전집 말고도 그 동안 펴낸 단행본만 126권. 꾸준한 인세만으로도 그의 노후는 여유로운 편이다. 중앙청 출입기자를 오래해서 대기자가 될 수도 있었으나 그는 자녀들 곁에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 작가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

#### 죽는 날까지 쓰고 또 쓰다가 눈감는다

그는 최근에 딸들이 살고 있는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쪽으로 다시 옮겨왔다. 물론 혼자 살고 있다.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 딸들은 어머니를 거슬러 또다시 어디론가 이사할 것을 염려하여 어머니에게 일절 참견하지 않는다. 다만 노후로 전보다 쇠약해졌는데도 원고지에 매달



1970년대 문우들과(앞줄 왼쪽부터 박목월, 모운숙, 장덕조, 뒷줄 왼쪽부터 손소희, 김자경, 한 사람 건너 유주현)

린 작가의 모습에서 안쓰러움과 연민을 느낄 뿐이다. 이번 ‘해동삼국지’가 끝나는 대로 1만 2천 장 분량 예정인 ‘상고사’ 6권의 기념답을 쌓으려는 이 원로작가의 모습에는 어머니의 자리보다는 역시 ‘죽는 날까지 쓰고 또 쓰면서 눈을 감게 될 것’이라는 작가정신과 사명감, 문학에의 의지만이 극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내일 모레면 9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맑고 깨끗한 눈매, 흐트러짐이 없는 정결한 자세로 그는 누구에게나 각뚫한 말씨를 쓰기를 잊지 않는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어렵게 경외할 뿐’이라는 데 대해 어머니로서의 그는 아들딸들에 대한 사랑을 “그 맹목의 애정, 견딜 수 없는 그리움, 가슴에 멍이 들게 하는 통한, 혹은 홀연히 엄습해 오는 충만감, 모성에는 일종의 도취로서 나 자신의 개성이 너무 강한 나머지 어머니를 향한 아들딸들의 정성을 외면한 것처럼 돼버렸으나 치순(稚純)한 모정은 가지 많은 나무, 세찬 폭풍 속에서도 존재를 확인케 하는 강한 사상을 내게 심어준 것은 많은 가지들인 내 아들딸들이다. 우리는 살아 있다는 사실,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의 원리로 삼고 있는 점에는 공통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는 요즘도 미국에서 끊임없이 어머니를 찾아오는 아들들을 이 땅에서 맞고 보낸다. 아들들이 번갈아 미국에서 불러도 “한국인으로서의 집념은 아들들의 야심 못지 않게 강한 것”이라고 외면해 버린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는가. 그러나

나는 육체의 안일이나 돈·명예에 가치를 뒀본 일이 없다. 일상적인 즐거움에 유혹당하면 글을 쓸 수가 없다. 작가는 글 쓰는 사람이고 글 쓰는 일만이 행복이다. 작가는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현세욕에 초연한 선비기질을 당연히 지녀야 한다.”

작가는 엄연히 말한다.

“나는 절대로 자유인이다. 육체적으로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는 것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행복이란 주관적인 것이어서 물질의 풍요나 육신의 안일은 심리적인 충족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내 자유를 침범하는 간섭에는 따를 수 없다. 나는 아집이 아닌 의지로 지상에 머무는 동안 나 자신을 지킬 것이다. 인생 오십을 살거나 육십을 살거나 영겁(永劫)으로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다 같이 일순(一瞬)이요, 일찰나(一刹那)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예술원 회원인 원로소설가 박연희는 “그만큼 한문 실력이 뛰어난 작가는 이제 없다. 그가 있을 때 올바른 역사관이 조명돼야 한다. 그 정신이 옛 문인의 기질로 누구나 장덕조 선생처럼 되고 싶지만 현실에 부대끼다보면 마모하기 마련인데 다만 그가 부러울 뿐이다. 그의 무한하고 박식한 한문 실력은 장덕조 선생이 계신 동안 우리의 역사소설이 정리돼야 한다”고 했다.

그가 한국의 5천년사를 50권 완간으로 성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드린다. 🌈